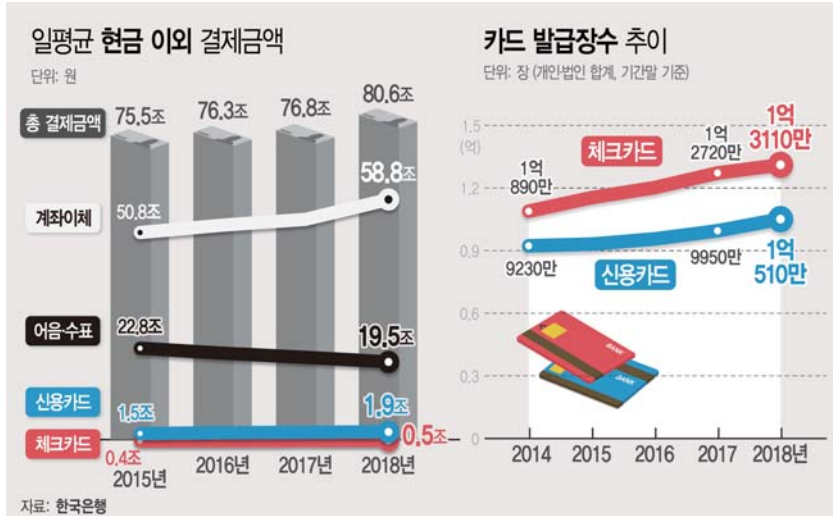


작년 카드로 일평균 2.4조 굼었다...소액화 추세 지속

한국은행, 건당 결제금액 신용 4만3089원 · 체크 2만2471원



지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로 굼은 결제금액이 하루 평균 2조4000억원에 달했다. 현금 대신 카드를 이용하는 비중이 지속 늘고 있어왔다.

카드당 결제금액은 감소하며 소액화 추세가 뚜렷해진 모습이었다. 7일 한국은행의 '2018년중 지급결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신불·현금IC 및 직불카드 등 지급카드의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조9000억원, 2016년 2조1000억원, 2017년 2조2000억원 등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한 것이다.

카드 결제 증가로 현금이 아닌 전체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8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일평균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중 개인의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8.8% 늘어난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18.4%)와 냉방용품·공기청정기 등 가구·가전제품(10.8%)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편의점에서 이용한 실적도 19.5% 늘어 전년(24.2%)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4170억원에 그쳤다. 카드사가 법인 회원에 제공하던 국제 카드납부 수수료 감면 혜택이 줄어들어 영향 등으로 분석됐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5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늘었다.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제 혜택과 신용카드와 비슷한 부가서비스

등에 힘입어 높은 인기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전체 지급카드 이용실적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전년(20.9%)보다 소폭 확대됐다.

카드 발급장수는 체크카드가 1억 3111만장으로 신용카드(1억506만장)를 웃돌았다. 다만 두 카드간 발급장수 격차는 2605만장으로 전년(2773만장)보다 축소됐다.

결제 금액의 소액화 현상은 계속됐다. 신용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4만3089원, 체크카드는 2만2471원으로 전년보다 1.9%, 3.0%씩 줄어 들었다. 주로 소액결제에 이뤄지는 편의점, 대중교통 등에서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영향이다. 일평균 결제건수는 전년 대비 10% 가량 늘어난 387만건, 2232만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도 일평균 5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공공망 중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결제액(8000억원)은 전년 대비 43.6% 늘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인터넷뱅킹과 뱅킹 계좌이체 결제액도 각각 6.4%, 8.6% 늘어났다. 지로 시스템, CD공공망 등을 이용한 기타부류는 1% 줄었다.

자기앞 수표 이용과 전자어음 결제 등이 줄어들면서 어음과 수표 결제금액은 일평균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미세먼지에 소비도 늘어...야외활동 대신 실내쇼핑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수록 소비도 늘었다. 야외활동 대신 영화관이나 쇼핑몰을 찾는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카드결제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BC카드 빅데이터센터는 지난 2017~2018년 중 미세먼지 상태가 심각했던 12월과 1월 두달간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상청 에어코리아의 공공데이터, 다음소프트 소셜데이터 등을 활용해 이같이 발표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년 악화됐다.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이나 '매우나쁨'을 보인 때는 조사기간의 총 30%로 집계됐다. ' 좋음'이었던 기간(10%)의 3배에 달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할수록 소비도 늘었다. BC카드가 이 기간 카드 매출과 미세먼지 등급을 살펴본 결과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이나 '매우나쁨'일 때 '보통'일 때보다

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었다. 카드 사용액은 평상시를 기준으로 '나쁨'일 때는 약 2.9배, '매우나쁨'일 때는 7.8배 늘었다.

특히 여성과 젊은 연령대에서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일 때 평상시보다 남성은 2.6배 지출한 반면 여성은 3.2배를 썼다. '매우나쁨'일 때는 3.2배를 썼다. '매우나쁨'일 때는 3.2배를 썼다.

영화관·쇼핑몰·키즈카페 찾아 30대·女, 미세먼지 민감도 커

나쁨일 때 남성은 평소보다 5.9배 카드결제한 반면 여성은 무려 10.2배 지출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미세먼지 상태가 '매우나쁨'일 때 60대는 평소보다 0.5배 더 쓰는 데 그치고 70대는 오히려 1.1배 덜 썼던 것과 달리 30대에선 무려 카드지출이 15.5배 늘었다. 40대도 9.1배, 30대 미만도 6.1배 지출했다.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이상일수록 실내에서 소비가 이뤄졌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멀티플렉스나 영화관 복합쇼핑몰, 키즈카페 등에서 카드결제가 늘었다. '매우나쁨'일 때 멀티플렉스·영화관 소비는 평소보다 33% 늘었다. '나쁨'일 때 복합쇼핑몰과 키즈카페 카드지출도 각각 15% 증가했다.

BC카드가 다음소프트와 소셜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등급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미스크' 인접량도 늘었다. 지난 2016년 1~3월 보다 올해 1~2월에 '방독면'이나 '미세먼지측정기', 'kf94 황사마스크' 등 구체적인 키워드가 두드러졌다.

뉴스

광주·전남중기청, 1700명 규모 청년 예비 창업자 모집

오는 28일까지...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기술창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가 원활한 창업과 사업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전담 멘토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장

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년 예비 창업자 발굴·육성 체계를 일부 보완했다.

금년에 지원하는 전체 규모는 1,700명 수준으로, 3월말까지 600명의 예비창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각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1,100명을 추가 선발하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창업자 규모는 기술보증기금 전국 7개 본부에서 800명을 모집하고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100명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케이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사업 신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 광주대학교 호심관 3층 소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재홍 청장은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 단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예비 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창업지원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롱테일 컨버터블 모델 600LT 스파이더 국내 공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맥라렌 서울 쇼룸에서 모델이 새롭게 출시한 '맥라렌 600LT 스파이더' 차량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쌀 '풍광수토' 전국 릴레이 관촉행사

전남도는 농협 전남본부와 공동으로 전남쌀 광역브랜드인 '풍광수토' 전국 릴레이 홍보 및 관촉 행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했던 쌀 홍보·관촉행사를 올해는 제주, 영남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제주쌀 유통업체인 '좋은쌀 유통법인'과 25개 할인마트협동조

합에서 전남쌀 홍보·관촉행사를 열었다.

쌀 포장 단위를 기존 20kg 관행에서 벗어나 10kg, 4kg 소포장 단위로 출품,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했다. 또 미질 저하 방지로 전남쌀에 대한 구매 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제주도 행사에 이어 4~5월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5~7

월 수도권에서 관촉행동을 펼쳐 유통업체 임점을 확대해 원거리 소비자가 전남쌀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풍광수토는 2017년 농협전남본부에서 11개 R/C가 참여해 만들어진 광역브랜드다. 전남도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아 올해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김정환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